

# 닭 뇌척수염 (A.E) 의 症狀

김 인 식  
(푸리나코리아 기술부장)

일명 유행성 진전증(Epidemic Tremor)라고도 하며, 바이러스에 의한 부화후 1~3주령의 초생추에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이다.

초생추에 있어서는 신경증상에 의한 다리근육 조절마비로 엉덩이를 땅에 대고앉거나 머리, 목, 다리 등의 진전(떨림)이 특징이며, 다른 질병과 구별할 때는 병아리를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뒤 또는 다리부위의 솜털이 바람에 날리듯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질병은 계절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나 주로 1월~6월의 육추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초생추에는 이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나 성계에서의 감염은 불현성으로 의형적인 증세는 전혀 느낄 수 없으며, 다만 산란율이 20~30% 가량 2~3주간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2~3주내에 회복되는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산란계에서 이 병의 증상과 흡사한 질병이 있는 것으로 평택의 모 종계장에서 최초의 보고가 있었으며 증상과 제반부검 결과 A.E로 확증을 얻었으나 원인병독 분리에 의한 확인이 되지 않아 당시에는 백신의 수입과 접정이 불가능했었다.

다시 1973년 6월 부화업자와 안양가축 위생연구소 계역담당관 연석하에 진행된 닭의 뇌척수염(A.E)와 전염성 기관지염(I.B)에 대한 학술 토론회 이후 1974년부터 A.E백신의 국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국내 3개 약품회사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A.E백신은 전체종계의 20%미만이며 일반 실용추의 A.E에 대한 면역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채란용 병아리에도 A.E백신을 하는데 국내 부화업자들이 보유하는 종계는 80% 이상이 A.E에 대한 면역을 얻지 못하고 있어 A.E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증대되어갈 우려가 있다.

A.E에 대한 피해를 막는 길은 종계에 A.E백신을 한 부화장의 초생추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일 현재 사양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산란계중 A.E로 판단되어지는 산란곡선의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갱신계의 대추 기간중(10주~16주) 사이 A.E백신을 하는 것이 산란기간에 A.E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수입된 A.E백신의 가격은 수당 15원 음수용백신으로 접종시기는 90~120일 형임.)

(78. 4. 10 푸리나프로그램 기술회보中에서)